성신여자대학교
교수대의원회 소식지

차 례 | 인사말 | 성신시론 | 성신 교수대의원회 소식 | 교수동정

2026년 9월 I 제12호



SUNGSHIN
WOMEN'S
UNIVERSITY

성신의 오늘과 내일,
함께 만드는 대학





성신여자대학교
SUNGSHIN WOMEN'S UNIVERSITY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대의원회 소식지

12

2026년 9월

CONTENTS

01 | 성신시론

- 5기 대의원회장 인사말
- 정년퇴임 교수 특집
  · 정년을 맞으며(김주홍)
  · 정년퇴직의 변(박경)
  · 성신에서의 30년(황정희)

02 | 성신 교수대의원회 소식

- 1. 5기 대의원 조직도
- 2. 대학 주요 위원회 추천 위원
- 3. 교수 권익과 대학 발전을 위한 주요 활동
- 4. 대의원회 협조문 발송 내역
- 5. 회원 및 재정 현황
- 6. 교수 대의원회 행사

03 | 교수 동정: 신임교수 소개 (1)~(7)



교수대의원회 회장 인사말



박 성 순
교수대의원회 회장

존경하는 교수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수님들의 뜻을 대의하기 위해 구성된 대의원회가 어느덧 제5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성신여대의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해 온 이전 대의원회의 활동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5월, 대의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였던 제13대 총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및 토론특위로 봉사해 주신 교수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제13대 총장 선임이 완료되고 임기가 시작된 지 벌써 1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 제13대 총장 재임 기간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대외적으로 여러 문제로 인해 대학 간 경쟁이 지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대학의 성숙한 준비와 재도약을 위한 어쩌면 마지막 시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는 대학 재정의 견실화를 위해 대학본부의 노력과 외부 사업 수주 등을 추진하며 점차 안정을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 역시 엄연한 현실입니다. 특히 무전공 입학 제도의 시행 등 정부 정책을 적용하여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과 구조의 취약화가 진행되는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 또한 우리 학교의 상황을 개선하기에 협조적인 방향만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내외의 문제들이 어느 한 개인의 생각과 힘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기 때문에 성신여대 구성원 모두의 지성을 모으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제5기 대의원회는 대학본부와 교수님들 간의 소통을

담보하는 노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속되는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 부임하신 교수님들께서 우리 대학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만족스럽게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교수님들의 의사를 경청하고 필요한 장치 마련을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기를 거치며 단련된 우리의 내성이 다가올 미래를 지켜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5기 교수대의원회가 교수 대의기구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고 여러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교수님들의 건승과 학문적 성취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제5기 교수대의원회 회장 박성순 드림

정년을 맞으며



김 주 홍
수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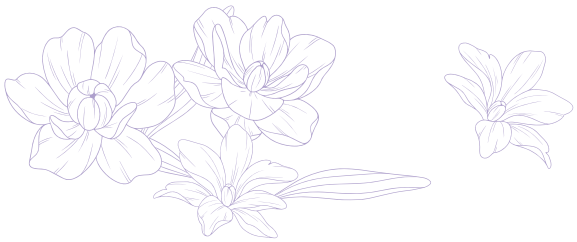
정년을 맞아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지나온 일들이 한 편의 드라마 같다.

봄학기에 수학과 신입생 MT를 따라갔던 기억이 난다. 대성리와 우이동의 MT 촌, 그리고 난향원을 오가며 하룻밤을 거의 새다시피 하고 돌아왔다.

입사 3년 뒤쯤에 총장 선출 문제로 학교가 시끄러웠다. 교수 평의회와 교수 협의회 둘로 나뉘어 싸웠다. 회색 지대의 교수도 있었다. 겉으로는 명분 싸움이었고 속으로는 권력 투쟁이었다.

마음에 맞는 교수님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주로 학교가 돌아가는 형편이나 다른 교수들의 행동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면에서 어수선한 학교 분위기를 틈타 은연중 망중한을 즐긴 느낌도 든다. 상대 진영에 대한 반목이 난무하는 가운데 나는 마음고생이 심했다. 학교 소요(騷擾)로 학교 발전이 10년은 후퇴했다고들 한다.

과거에는 선후배 간의 끈끈한 정과 의리가 중심이었지만, 요즘은 개인의 취향, 시간,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개인주의로 변했다. 집단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사회적 패러다임이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거쳐 간 총장은 일곱 분이고, 삐거덕거렸지만, 학교는 서서히 제자리를 찾는 것 같다. 학과장, 학장, 교수회 회장, 각종 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누군가는 해야 할 자리였다.
초창기에 정기적인 입사 동기 모임을 가졌다. 만나면 저녁, 맥주, 노래방 삼종세트로 마무리했다. 나이 차이로 은퇴 시기는 제각각이지만 끈끈한 정은 남아 있다. 최근에 몇 분이 은퇴 축하 모임을 열어 주었다.

학교 등산 모임인 산우회 회원으로서, 한 달에 한 번꼴로 전국의 이름난 산을 다녔다. 등산은 적어도 4시간 이상을 걷는 강행군이었다. 하지만 하산 후 걸을 때는 기분 좋은 고관절 통증이 밀려왔다. 산행은 건강과 교육·연구에서 받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됐다.

가을이 깊어가던 무렵, 산우회는 설악산 산행을 계획했다. 돌이켜보면 중간고사 기간이었던 것 같다. 그 시절에는 시험 기간이 정해져 있었기에, 시험을 치르고 곧바로 산으로 향하는 호기를 부릴 수 있었다. 용대리에서 출발해 백담사와 봉정암을 거쳐 소청 대피소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튿날 대청봉을 거쳐 오색으로 하산하는 코스였다. 하지만 봉정암을 앞두고 가을비가 장대비처럼 퍼부었다. 폭우 속에서 비를 흠뻑 맞으며 어둠이 깔린 소청 대피소에 겨우 당도했다. 그곳에는 탐방객들의 음식을 탐내는 다람쥐들이 가득했다. 이 녀석들이 머지않아 닥쳐올 저 혹독한 설악산의 겨울을 어떻게 버텨낼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다.
한여름에 덕유산을 등산했다. 무주구천동을 끼고 걷다 향적봉에 오르고, 주능선을 타고 가다 남덕유산을 거쳐 서상면까지 내려갈 계획이었다. 무더위에 지쳐 도중에 칠연계곡, 안성 매표소 방향으로 하산했었다. 얼굴은 따가운 햇볕에 벌겋게 달아올랐고, 더위에 지친 몸은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처졌다. 계곡물에 발 담그고 먹은 작지만, 신맛이 강한 아오리 사과가 달았다. 독일 출신 탈러라는 이름의 독문과 강사도 동행했다. 향적봉에서 운행하는 곤돌라를 보자, 힘든 김에 "왜 이렇게 힘들게 걸어 올라왔지?"하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내뱉었다.

방학 때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 거대한 품을 마주하고 오면, 속세의 번잡한 일들은 한없이 작아 보이고 마음은 이내 넉넉해진다. 이렇듯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에 가슴 설레던 기억이 있다. 2012년 1월, 매서운 추위를 뚫고 설악산 오색 코스로 올랐다. 어둑해질 무렵 겨우 도달한 대청봉에는 살을 에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다음 날, 밤새 내린 눈으로 온 세상은 하얗게 지워져 있었다. 눈꽃을 피워낸 나뭇가지들을 지나 정상에 서자, 발아래 골짜기는 온통 거대한 운해로 뒤덮여 있었다. 마치 구름바다 위에 홀로 선 듯한 그 압도적인 풍경 앞에,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학교생활은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고 언짢았다. 또한 긴장과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렸다. 극복할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어느 2월에 문경 정토수련원으로 4박 5일 명상 수련을 갔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반가부좌나

결가부좌 자세로 묵언 수행했다. 내가 행한 위파사나 수행은 현상과 내면의 움직임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통찰을 얻는 불교 전통의 명상법이다. 첫날은 등과 다리가 저리고 아파 진땀이 났지만 차츰 진정됐다. 법륜스님의 명상 시범을 영상으로 보고 따라 했다. 중간중간 저린 발을 푸는 포행(좌선을 하다가 잠시 일어나 걷는 행위)을 한다. 마지막 날 새벽에 일어나니 서설(瑞雪)이 소복이 내려 있었다.
지금은 하지 않지만, 한동안 새벽마다 40분씩 명상을 계속했었다. 미국 작가 줄리아 카메론이 『아티스트 웨이』에서 제안한 '모닝 페이지' 작성도 병행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사소한 감정까지 그대로 적어 내려가는 이 방법은, 내면의 진솔한 목소리를 듣는 도구였다. 쓰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끼곤 했다.

『러쉬(RUSH)』에서 토드 부크홀츠의 다음 주장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고 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찰을 통해 발견한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역동적인 과정에 있음을 시사한다.

적당한 긴장감과 경쟁은 오히려 삶의 의욕을 고취한다. 가장 중요한 경쟁자는 자기 자신이며, 어제보다 나아지려는 노력이 곧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

J 교수는 많은 은퇴 교수를 만났는데 한 사람을 제외하고 학교생활을 후회하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죽은 철학자의 살아있는 인생 수업』에서 시라토리 하루히코와 지지엔즈는 다음과 같이 그 원인을 짚어낸다.

정년 후 자신의 마음이 공허함을 느낀다. '제2의 인생'을 위해 취미생활에 자신을 매몰시키려 한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았지만 허무함을 느낀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오지 않은 까닭이다.

'세상에 맞춰 살아왔다'라는 말은 세상의 상식을 자신의 상식으로 삼고, 세상의 윤리·도덕을 자신의 윤리·도덕으로 삼아 살아왔다는 뜻이다. 자기 자신이란 본능, 의지, 능력의 가능성이 뭉쳐 있는 것이다. 진짜 나로 사는 법은 숨겨진 가능성을 모두 꺼내 마음껏 발휘하는 활동이다.

칸트, 쇼펜하우어, 사르트르 등의 철학자가 말한다.

불쾌감은 자신이 살아 있음을 의미한다. 살아있기에 환경의 자극을 느끼고 그에 대해 감정적인 반응(불쾌)을 겪는다는 의미다. 스스로 느끼고 반응하는 진짜 삶을 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말대로라면 학교생활에서 불쾌감을 느꼈으니 나는 진짜 삶을 산 것일까? 하지만 단순히 불쾌감을 견디는 것만이 삶의 전부일 수는 없다. 고통에서 탈출하려는 의지 역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실존적 몸부림이다.

실존주의는 주어진 상황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넘어, 가혹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주체성과 자유를 찾으려는 '투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프타임』의 저자 밥 버포드는 말한다.

인생 전반부는 '성공'하기 위해 달리는 기간이다. 배우고, 성취하고, 획득하느라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는 시기다.

인생 후반부는 급한 일들을 해결한 후 맞이하는 삶이라 더 위험이 따른다. 우리 안의 창조성과 힘의 씨앗을 움트게 하고 물주어 가꾸면서 풍요로운 결실을 보는 때다. 이를 위해 우리의 재능을 투자하여 사회에 봉사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희열을 느끼고 맛본다.

하프타임은, 이런 성공적인 후반부를 맞이하기 위해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시기다.

무탈하게 정년을 맞으니, 나의 인생 전반부는 성공한 삶인가? 인생 후반부에 어떻게 할지 아직 생각이 없다.

50대 후반에 철인3종경기에 도전했다. 잠실대교 아래, 혼탁한 한강물 속에서 두려움과 싸우며 헤엄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풀코스 마라톤 두 번과 철인3종 올림픽 코스, 하프 코스를 완주했다. 얼마 전 자전거 낙차 사고로 6일간 병원 신세를 졌지만 트라우마는 남지 않았다. 조깅과 수영, 등산과 자전거는 여전히 내 삶의 건강한 활력소다. 다만 요즘도 문득문득 운동하러 나가기가 참 귀찮아질 때가 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맞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일단 시작만 하면 하루 운동 목표량을 채운다.

은퇴하면 연령과 건강 상태는 같으나 계속 일을 하는 사람과 비교할 때 어휘를 많이 잊거나 생각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은퇴와 동시에 기억력이 감퇴하고 행복지수마저 낮아진다는 그 서글픈 통계는, 단순히 뇌의 노화가 아니라 세상과의 끈이 느슨해질 때 찾아오는 마음의 그늘일지도 모른다. 마땅한 일거리를 찾아야 할 모양이다.

실제로 은퇴를 코앞에 둔 지금, 내 마음 한구석에는 무슨 일을 하다가 그냥 내버려둔 것만 같은 아련한 느낌이 남아 있다. 평생을 바쳐온 이 길의 끝에서 밀려오는 묘한 섭섭함의 여운인가 싶다. 그럼에도 내가 이 아름다운 마침표, 즉 정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순전히 가르칠 학생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나의 열정을 받아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며, 내 삶의 자리를 의미 있게 해준 성신의 학생들이 그저 고맙고 또 고마울 뿐이다.

정년퇴직의 변



박 경
지리학과

빛과 종이, 그리고 AI: 교육 현장 20여 년의 궤적을 돌아보며

프롤로그: 어둠 속에서 빛나던 렌즈의 추억
2003년 내가 처음 교육 현장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를 기억한다. 강의실의 풍경은 지금과 참 많이 달랐다. 수업을 준비하는 교육자의 아침은 묵직한 기계 장비와 슬라이드 필름을 채운 트레이를 챙기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미국 유학길에서 전수받은 자연지리학 교육의 첨단 무기는 단연 슬라이드 프로젝터(Slide Projector)였다. 찰칵,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렌즈를 통해 뿜어져 나오던 뜨거운 열기, 불이 꺼진 어두운 교실 안에서 스크린 위에 맺히던 사각형의 빛무리. 그 빛 속에서 학생들은 칠판의 흰 판서와 필름 위 글씨를 번갈아 보며 부지런히 노트에 적어 내려갔다. 그러나 그 아날로그의 낭만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디지털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물결이 순식간에 교실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디지털 대전환: 빔프로젝터와 파워포인트(PPT)가 바꾼 교실
2000년대 중후반을 지나며 교육 현장은 눈부시게 변해갔다. 슬라이드 프로젝터의 자리를 빠르게 대체한 것은 파워포인트(PowerPoint)와 빔프로젝터였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자재의 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교육 시각화의 혁명'이었다. 더 이상 어두컴컴하게 교실 불을 꺼둘 필요가 없었고, 찰칵거리는 필름 교체 소리 대신 경쾌한 마우스 클릭 소리가 교실을 채웠다. 텍스트 위주의 전달에서 벗어나 컬러 이미지,

애니메이션 효과, 텍스트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멀티미디어 수업이 가능해졌다.
교육자로서 나의 수업 준비 내용도 바뀌었다. OHP 필름에 네임펜으로 글씨를 쓰던 손은 이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디자인하고 템플릿을 고르는 손길로 변했다. "어떻게 하면 지식을 더 직관적이고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던 시기였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정년을 맞이하는 2026년 마지막 학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들은 나의 폰트 선정의 미숙함과 미적 감각이 없음에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 양식도 급변하였다. 누런 원고지나 손으로 쓴 레포트 대신 깔끔하게 프린트된 HWP, Word 문서가 제출되기 시작했다. 지식의 생산과 소비 속도가 이전에 비할 수 없이 빨라진 것이다. 빔프로젝터의 화려한 빛 아래서, 나는 교육이 디지털이라는 날개를 달았음을 직감했다.

강의실 너머의 진짜 교실: 지형학 답사의 살아있는 즐거움
그러나 스크린 속 화려한 PPT 슬라이드도, 고화질 3D 지형 모델도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자연지리학 교육의 꽃이 있었다. 바로 지형학 야외 답사였다. 강의실의 기자재는 슬라이드에서 빔프로젝터로, 다시 디지털 태블릿으로 끊임없이 변해갔지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산과 바다, 강변 현장에 서는 순간만큼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았다. 동해안과 남해안 지역의 다양한 지역성과 노두를 관찰하던 야외 수업은 지형학자이자 교육자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즐거움이었다.
교과서에 적힌 사소한 지형학적 개념 하나가 눈앞의 웅장한 지형으로 펼쳐질 때 학생들의 눈에서 터져 나오던 그 신기함과 감탄. 답사 버스 안에서 나누던 웃음소리와 해 질 녘 현장 토론 끝에 기울이던 막걸리 한 잔의 온기는, 그 어떤 첨단 매체도 줄 수 없는 지형학만의 살아있는 낭만이자 교감의 장이었다. 교실 안 기술은 격변했지만, 땅을 밟고 자연의 이치를 온몸으로 배워나가는 답사 현장에서만큼은 언제나 '진짜 교육'의 생동감이 숨 쉬고 있었다.

종이의 종말과 AI 시대의 도래: 지식의 소유에서 지식의 탐구로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우리가 겪어낸 변화는 이전의 10년, 20년을 아우르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격렬했다. 팬데믹을 거치며 태블릿 PC와 스마트기기가 학생들의 책상 위를 점령했고, 두꺼운 종이 책자와 무거운 레포트는 화면 속 PDF와 디지털 문서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진짜 파도는 그 뒤에 찾아왔다.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시대의 개막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에게 레포트를 제출하라고 하면 자료를 검색하고 정리하는 데 며칠이 걸렸다. 그러나 이제 AI는 몇 초 만에 수준 높은 보고서 개요를 짜주고, 코딩을 짜주며, 번역과 요약까지 완벽하게 해낸다.
교수자로서 처음 AI를 접했을 때의 충격과 낯섦을 잊지 못한다. “지식을 가르치고 평가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AI가 써준 레포트와 학생의 진정한 생각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 깊은 번민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의 궤적을 돌이켜보면 답은 명확했다. 슬라이드 프로젝터에서 빔프로젝터로 넘어갈 때도, 종이 책자에서 디지털 파일로 넘어갈 때도 우리는 늘 정답을 찾아왔다. 기자재와 매체는 변하지만, 교육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제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고 '기억'하게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AI가 쏟아내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능력과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힘(Critical Thinking), 그리고 인간적인 따뜻함과 윤리를 가르치는 방향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에필로그: 렌즈의 빛에서 인공지능의 지혜로
지난 20여 년은 그야말로 문명사적 격변기였다.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던 슬라이드 프로젝터의 아날로그 감성, 빔프로젝터와 PPT가 가져다준 디지털의 편리함, 현장의 흙냄새를 맡으며 자연을 배우던 답사의 열정, 그리고 모든 경계를 허물고 있는 현재의 AI 시대까지.
돌이켜보면 내가 지나온 길은 단순히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는 과정만은 아니었다. 새로운 도구를 매개로 학생들과 어떻게 가슴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 온 '적응과 진화의 시간'이었다.
기술은 더욱 눈부시게 발전할 것이고, 앞으로 10년 뒤의 교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는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홀로그램으로 수업하고, AI 튜터가 개인별 맞춤 교육을 완벽히 수행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20년 전 어두운 교실에서 슬라이드 프로젝터 빛을 바라보던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현장 답사지에서 지형을 바라보며 감탄하던 눈빛, 그리고 오늘날 AI 화면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는 학생들의 눈빛은 다르지 않다. 매체는 필름에서 파워포인트로, 그리고 프롬프트 창으로 바뀌었을지언정,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성장을 도모하고 가능성을 밝혀준다는 교육의 '빛'은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다.
그 격동의 역사 한가운데 서서 교육자로서 열정을 바칠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와 자부심을 느낀다. 다가올 또 다른 변화의 물결 앞에서도, 나는 변함없이 지식의 항해사이자 성장의 조력자로서 성신여대의 교실을 지킬 것이다.


성신여자대학교

성신에서의 30년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길



황 정 희
중국어문·문화학과

성신은 제 청춘의 출발점이자 지난 30년간 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모교이자 직장이었던 이곳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겪어온 역사와 경험을, 퇴임을 맞아 간략히 회고하고자 합니다. 지면을 허락해 주신 교수대의원회에 감사드립니다.

1996년 9월, 제 교수 생활은 학내의 두 가지 큰 사태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학생운동과 권희정 열사의 희생, 새로운 재단이사장 선임에 따른 보이콧 운동 속에서 학생·동창회·교수·직원[시위 현장 참여 숫자 순] 4주체가 한목소리로 뭉쳐 싸웠습니다. "성신 수호, 이00 퇴진"이라는 구호 아래 국립기관[이00이 이사장이었음] 앞 인도를 메우고, 동대문 대형교회[이00이 다니던 교회] 앞 인도를 메웠던 기억은 지금도 뜨겁게 남아 있습니다. 그 투쟁은 힘겨웠지만, 결국 성신의 주권을 되찾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대학사에서 4주체 참여라는 유일무이한 총장 직접선거가 성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세 차례의 직접선거를 치르며 우리는 혁명의 성공을 넘어 '수성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직접 투표는 관심과 열정을 크게 끌어내었고, 그것이 상식적인 선출로 이어졌다면 총장 취임식은 축제로 연출되었을 것이며 그렇게 모여진 구성원들의 관심과 열정은 성신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에 가설은 없지만, 그 과정은 성신 민주적 거버넌스의 소중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오랜 투쟁 끝에 성취한 민주적 거버넌스를 어떻게 성신에 안착시켜 발전과 도약으로 이어갈 것인가입니다. 학생과 졸업생의 절대적 지지와 참여 없이는 과거의 성공도 불가능했듯, 앞으로도 4주체의 협력과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교수의 지분을 대학의 중심으로 인정하면서도, 각 주체가 권리와 의무를 함께 짊어지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총장선거에서 기탁금 제도를 도입해 소모전을 방지한 것은 발전적 제도의 좋은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재단 이사 선출 참여, 인사권 문제에서의 권리 보호 등 구체적 제도화를 통해 민주적 거버넌스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교수대의원회는 교수에 대한 지나친 연구업적 요구와 학제 간 동일 기준 적용 등의 불합리성을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내며, 다른 주체와 함께 성신 발전이라는 큰 담론 속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성신은 이제 4주체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대학입니다.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며, 부당한 권력에 맞서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갈 때, 성신은 명문사학으로서 독자적 성장 모델을 완성할 것입니다. 지난 투쟁의 기억은 성신의 미래를 위한 자산이며, 그 자산을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신 교수 대의원회 소식

1 5기 대의원회 조직도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기획·총무 분과
박성순(자연대)	윤현근(공대)	박서현(창융대) 박진곤(사회대)	윤기현(자연대)	변혜원(IT대) 진경선(사회대) 박희원(자연대) 고병준(공대)

교무 분과	연구 분과	홍보 분과	학생 분과	복지 분과
김나경(법대) 강효진(IT대) 김동현(미대)	김종훈(공대) 정세진(인문대) 김학경(IT대) 권정윤(사범대)	김일환(인문대) 황상준(미대) 김미영(생활산업대) 이규중(IT대)	김용재(사범대) 윤영숙(생활산업대) 정성윤(미대)	김영주(간호대) 권호영(인문예술대) 이가영(음대) 황성옥(사회대)

2 대학 주요 위원회 추천 위원

- 학술연구위원회 위원: 김종훈 교수(바이오식품공학과, 연구분과장) 추천
- 교육과정위원회 위원: 박서현 교수 (창의융합학부, 총무) 추천
- 전임교원 승진임용 및 재임용 심사 위촉 평정위원 : 윤현근 교수(바이오식품공학과) 추천

3 교수 권익과 대학 발전을 위한 주요 활동

- 운정캠퍼스 교수 대의원회실 이전

4 대의원회 협조문 발송 내역

03-10 학술연구위원회 위원 추천
03-17 대의원회_제13대 총장후보자 선거를 위한 투표 방식 회신
03-20 대의원회_교육과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추천
03-30 대의원회_제13대 총장 선거를 위한 전임 교원 질문 취합의 건
04-28 운정캠퍼스 교수대의원회실 배정의 건
05-18 교수대의원회_전임교원 승진임용심사 위촉 평정위원 추천
07-01 교수대의원회 대의원 결원에 대한 보궐 선출 의뢰
08-27 교원인사 관련 위원회 위원 추천

5 회원 및 재정 현황

▶회원 현황

- 2026년 8월 기준 회비 납부자 265명, 미납자 4명(요양휴직 중인 교원 1명, 그 외 3명)
- 2026년 9월 임용 정년트랙 신임교수 인원

▶재정 현황

- 2026. 03. 01. ~ 2026. 08. 31.

(단위: 원)

수입		지출		
전년이월	23,771,092	교수회실 운영비		1,558,520
대의원회비	7,940,000	근조기		492,200
이자수입(캐시백 포함)	16,779	기념품 제작		220,000
		회의비		1,004,600
		행사비	신임교원	618,700
			정년퇴임	280,000
			간담회	0
			친목행사	0
		소식지		0
		사교련회비		500,000
수입 합계	31,727,871	지출 합계		4,674,020
현재 잔액				27,053,851

6 교수 대의원회 행사

- 2026년 11월 중 교수 대의원회 친목 모임 예정



박 소 현 교수
소속: 융합보안공학과

01 Q&A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026년 3월부터 융합보안전문대학원 융합보안공학과에 임용된 박소현입니다. 학,석,박사 과정 모두 융합보안공학을 전공하였고, 무선통신 네트워크 보안, 디지털 신원과 인증 기술을 연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AI 보안 분야로 연구를 확장하여 활발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02 Q&A 전공분야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 주세요.

제 전공 분야는 융합보안입니다. Digital·AI Transformation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와 AI 기반 시스템이 사회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Wi-Fi, 5G/6G 등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정보통신 디바이스가 언제 어디서든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무선통신 기술은 디지털 및 AI 시스템의 핵심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하며 사용자에게 높은 편의성과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인증 정보 탈취 등 새로운 보안 위협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자율성을 갖는 Agentic AI 시스템과 로봇·자율주행 등 물리적 환경에서 동작하는 Physical AI 기술이 확산·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선통신 네트워크 보안, 디지털 신원 및 인증 기술, 그리고 AI 보안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선 환경에서의 안전한 통신 및 인증 기술,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디지털 신원 관리 기술, 그리고 Agentic AI 및 Physical AI 시스템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AI 보안 기술을 연구함으로써, 차세대 디지털·AI 사회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3 Q&A 성신구성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앞으로의 포부, 희망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융합보안 및 IT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분야입니다. 급변하는 기술 동향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미래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교육과 연구에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최신 기술을 제공하고 실질적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성신여대의 융합보안 분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외 융합보안 분야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Sungshin Women's University



박 찬 윤 교수

소속: 바이오헬스융합학부 식품영양전공

01 Q&A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026년 3월 바이오헬스융합학부 식품영양전공 신임교수로 임용된 박찬윤입니다. 저는 임상영양 및 면역영양을 전공하였으며, 영양이 건강과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자생물학적 기전부터 인구집단 수준까지 폭넓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 노화, 비만, 면역·염증 반응, 뇌 건강 등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영양(Precision Nutrition) 연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02 Q&A 전공분야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 주세요.

식품영양학은 단순히 무엇을 먹는 것이 좋은지를 이야기하는 학문이 아니라, 음식 속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건강과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학문입니다.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 유전체 정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운동, 비만 치료제 등 다양한 건강관리 전략이 결합되면서,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식품과 영양이 인체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더욱 복잡하고 다면적으로 이해해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영양이 미래 영양학의 중요한 연구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는 세포 및 동물실험을 통해 영양소의 작용 기전을 규명하는 한편, 대규모 임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인구집단에서의 식생활과 건강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와 빅데이터 연구를 함께 수행하며, 보다 과학적이고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03 Q&A 성신구성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앞으로의 포부, 희망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성신여자대학교에 새롭게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훌륭한 교육·연구 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 학기 동안 여러 교수님들께서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도움을 주신 덕분에 적응할 수 있었으며, 밝고 적극적인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점 또한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은 다양한 학문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식품영양학을 기반으로 의학, 바이오, 데이터 과학 등 여러 분야와의 융합 연구를 확대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과 연구가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더 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신여자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교육과 연구를 통해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 은 정 교수
소속: 간호대학 간호학과

01 Q&A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026년 3월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에 신임교수로 임용된 배은정입니다. 저는 간호학을 전공한 후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며 임상 경험을 쌓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을 돌보는 과정에서 아동의 건강은 가족의 삶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현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전문성과 따뜻한 돌봄을 함께 갖춘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02 Q&A 전공분야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 주세요.

저의 전공은 아동간호학입니다. 아동간호학은 신생아부터 청소년까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함께 다루는 학문입니다. 저는 가족과 지역사회 환경이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고, 취약가정 아동을 위한 통합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아동이 쉽고 즐겁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03 Q&A 성신구성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앞으로의 포부, 희망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성신여자대학교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 갖춘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가까이에서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교육과 연구를 통해 아동과 가족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며,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성실한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김 선 형 교수
소속: 프랑스어문·문화학과

01 Q&A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026년 3월 프랑스어문·문화학과에 새로 들어온 김선형입니다. 이렇게 교수대의원회의 소식지로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학부 때부터 불어불문학을 전공했고, 프랑스 문학과 예술에 매료되어 자연스럽게 파리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18세기 프랑스 미술비평을 연구하였습니다. 이후 성신여자대학교에 임용되기 전까지 홍익대학교 교양과에서 학생들에게 문학과 영화, 문학과 미술,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친 과목들을 가르쳤고 프랑스 문화·예술과 관련된 수업들도 많이 진행했습니다. 저의 취미는 미술전시회를 관람하는 것인데, 혹시 같은 취미를 갖고 계신다면 언젠가 미술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2 Q&A 전공분야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 주세요.

제 전공은 "18세기 프랑스 미술전시회와 미술비평"입니다.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왕립미술아카데미에서 주최하는 '살롱(Salon)'이라는 국전(國展)이 열렸는데, 이때 계몽주의 철학자 디드로가 1759년부터 1781년까지 전시회를 보고 나서 쓴 글이 바로 동일한 이름의 『살롱Salons』이라는 미술평론이었습니다. 『백과전서』의 편집자로 더 유명한 디드로는 절대왕정에 반(反)하는 계몽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살롱』은 출판될 수 없었고, 대신 외교관들을 통해 유럽 각국의 군주와 귀족들에게만 필사본 형태로 전달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디드로의 미술평론에 나타난 빛과 어둠〉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후에는 〈살롱전시회의 역사〉 연구를 통해 17세기 후반 첫 살롱전시회가 개최된 시점부터 대혁명을 거쳐 전시회 공간이 루브르(Louvre) 박물관으로 변모하기까지의 과정을 탐구했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미술품 수집의 역사(16~18세기)〉에 관심을 두고 미술품 수집가들의 활동과 컬렉션, 그리고 이러한 수집 문화가 박물관 소장품이나 미술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03 Q&A 성신구성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앞으로의 포부, 희망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는 프랑스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이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성신여자대학교에 들어와서 여러 훌륭한 교수님들을 만나 뵈니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저에게 많은 가르침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성신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제게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선배 교수님들께 많이 배우고 성신여대 학생들의 미래를 함께 밝혀갈 수 있는 교육자이자 연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 재 민 교수
소속: 일본어문·문화학과

01 Q&A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026년 3월에 일본어문·문화학과에 부임한 신재민입니다. 저는 재일코리안 문학과 문화운동을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과 AI를 활용한 인문학 연구 방법론에도 관심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저의 학문적·연구적 성과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유효한 사유의 틀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02 Q&A 전공분야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 주세요.

저는 재일코리안이 생산한 문학작품과 잡지 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뇌, 세대에 따른 변화, 일본사회와의 긴장과 공존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마이너리티와 디아스포라 연구로 시야를 확장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일코리안 관련 잡지와 출판물을 디지털화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시대별 주제와 담론의 변화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자료와 목소리를 발굴하고, 인문학 연구의 방법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일본 사회의 마이너리티를 살펴보는 일은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대비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디아스포라와 마이너리티의 정체성을 둘러싼 문제들은 머지않아 한국 사회가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될 과제인 만큼, 저의 연구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03 Q&A 성신구성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앞으로의 포부, 희망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 여정의 또 다른 시작을 성신여자대학교와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AI 시대에 인문학적 기반과 새로운 기술을 아우르는 교육으로, 학생들이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과와 학교의 발전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의 일원이자 교육자로서 긍지와 소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 소 연 교수
소속: 바이오신약의과학부

01 Q&A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1학기부터 바이오신약의과학부에 임용된 유소연입니다. 저는 생유기화학을 전공하며 질병 진단을 위한 화학 센서와 이를 활용한 약물 효능 평가 기술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박사후연구원 과정에서는 유전자 치료제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지질나노입자 기반 약물전달 플랫폼을 연구해 왔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배우는 자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성장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자이자 연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02 Q&A 전공분야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 주세요.

저의 연구 분야는 유전자 치료제를 원하는 세포까지 안전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약물 배송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전자 치료제는 뛰어난 치료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치료제가 스스로 목표한 장기나 세포를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운반해 주는 '운반체'가 필요한데, 저는 그 역할을 하는 지질나노입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치료제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능성 약물전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다양한 플랫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고속 분석 기술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03 Q&A 성신구성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앞으로의 포부, 희망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성신여자대학교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어 학생들과 동료 교수님들을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학은 지식을 배우는 공간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고 함께 성장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연구와 학업을 통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동료 연구자들과의 활발한 협력을 바탕으로 바이오신약 분야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성신여자대학교의 교육과 연구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만들어가는 교수가 되겠습니다.



장 유 미 교수
소속: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01 Q&A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026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와 함께하게 된 장유미입니다.

저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지만, 다양한 공학 분야 연구자들과 협력하며 디지털 플랫폼, 생성형 AI,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등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술을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기술 자체보다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과 경험, 그리고 사회와 미디어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학문 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온 경험은 저의 연구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도 하나의 전공에 머무르기보다 다양한 분야를 연결하며 새로운 관점으로 사고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를 깊이 이해하고, 기술과 사람, 학문과 사회를 연결하는 연구와 교육을 이어가겠습니다.

02 Q&A 전공분야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 주세요.

네이버는 AI 시대에도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플랫폼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OTT 서비스는 사용자의 취향을 넘어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 순간의 맥락까지 이해해 가장 적합한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을까요? 생성형 AI는 우리의 질문에 답하는 도구를 넘어 함께 생각하고 일을 수행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AI 시대의 디지털 격차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저는 이러한 질문에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네이버, 생성형 AI, 소셜미디어처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 그리고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왜 받아들이고, 언제 신뢰하며, 어떤 맥락에서 활용하는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더 나은 경험을,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과 비즈니스 전략은 무엇인지도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사람과 기술, 그리고 서비스를 연결하는 접점을 이해하고, 사용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 우리의 생활과 문화,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사람과 사회에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가고, 그 과정에서 얻은 통찰을 교육과 산업 현장으로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03
Q&A

성신구성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앞으로의 포부, 희망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대학은 정답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는 정답이 오래가지 않지만, 좋은 질문은 새로운 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새로운 기술과 사회 현상을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비판하기보다 "왜 그럴까?", "정말 그럴까?",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를 자연스럽게 고민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강의실은 서로 다른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고, 토론하며, 때로는 실패를 통해 배우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사회와 산업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교육과 연구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성신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학교와 학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신 교수대의원회 소식지

제12호

발행일 2026년 9월 30일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대의원회 소식지

제12호

발행일 2026년 9월 30일